2025.04.16 주간 제 420 호





발행처: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전화:+86-10-6780-8840 센터장: 김종문 메일문의: info@kicchina.org





| WEEKLY - | 뉴스 |
|-----------------|----|
|-----------------|----|

| 中美 AI 기술 격차 1 년 만에 9.3%에서 1.7%로 축소 | P1 |
|------------------------------------|----|
| 충칭의과대학 아동병원, 소아과 AI 주치의 공식 도입 | P2 |
| 알리바바, 글로벌 AI 인재 대규모 채용 추진 | P2 |
| 중국, '고순도 석영' 신종 광물 공식 발표 | P3 |
| | |

CHINA 창업

| [산업분석] 2024 년 중국 산업 자동화 장비 산업 발전 현황 | P5 |
|---|-----|
| [정책분석] 中 9 개 도시 V2G 시범사업 본격화 | P11 |
| [기업소개] RF 프론트엔드 칩 설계 기업 앙루이웨이(昂瑞微) 커촹반 IPO 신청 | P13 |
| [기업소개] 닝더스다이 (CATL), 고성능 배터리로 공세 시작 | P18 |

KIC 중국 뉴스

| KIC 중국, '2025 중관춘포럼' 한중과학기술혁신협력 포럼 개최 | P21 |
|--|-----|
| "한중일 ICT 장관회의 7 년 만에 재개 KIC 중국, 기술이전 협력 강화 | P23 |

행사 정보

| 중국 |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 P25 |
|----|---------------|-----|
| | | |

주간 중국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출처를 기재해주십시오.

주간 중국창업 420 호 [1]

WEEKLY 뉴스

■ 中美 AI 맹추격...1 년 만에 격차 9.3→1.7%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인간 중심 인공지능연구소(Stanford HAI)가 최근 발표한 「AI 인덱스 2025(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5)」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AI)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최고 AI 모델 간의 성능 차이는 지난해 1월 9.3%였으나, 올해 2월 기준 1.7%로 감소하였다. AI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인 대규모 멀티태스크 언어 이해 능력 평가(MMLU)에서도 2023 년 말 기준 13.5~31.6%포인트였던 성능 격차가 1년 만인 2024년 말 기준 0.3~3.7%포인트 수준까지 좁혀졌다.

현재 생성형 AI 분야는 OpenAI, 구글 등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중국의 딥시크 (DeepSeek) 역시 최신 모델에서 뛰어난 성능을 기록하며 미국의 AI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성과는 국제 AI 벤치마크 성능 평가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 년 민간 분야의 AI 투자 규모에서도 미국은 1,091 억 달러로 중국의 약 12 배, 영국의 약 24 배에 달하며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다. 특히 AI 핵심 모델의 수에서도 미국은 40 개로, 중국 15 개와 유럽 3 개를 크게 상회했다.

Al 기술은 이미지 분류, 언어 이해, 수학 등 특정 기술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성능면에서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OpenAl, DeepSeek, xAl, Anthropic, Meta, Mistral Al 등 주요 기업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상위 10대 모델 간의 성능 격차도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AI의 상업적 도입도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2024년 기준 AI를 도입한 기관은 전체의 78%에 이르며, 2023년의 55%에서 크게 증가했다. 반면, AI의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 사례 역시 5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미국 내 규제 조치도 2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출처: 르징중원망)



주간 중국창업 420 호 [2]

■ 충칭의과대학 부속 아동병원에서 소아과 AI 가정의 공식 출시

4월 7일 제 76회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충칭의과대학 부속 아동병원(重庆医科大学附属儿童医院)에서 소아과 AI 홈닥터 '충얼·샤오이(重儿小乙) 닥터'와 대형 언어모델에 최적화된 소아과 근거 기반(EBM) 지식 데이터베이스가 공식 출시됐다.

이번에 공개된 '충얼·샤오이 닥터'는 충칭의과대학 부속 아동병원이 기존 개발하였던 소아과 전문 대형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훈련된 AI 의료 시스템으로, 소아과 질환 및 건강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 검사 결과까지도 인식하며, 환자의 질문에 대해기본적인 답변은 물론이며, 영상 자료와 진료과 추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성이 높은 진료가이드를 제공한다.

충칭의과대학 부속 아동병원 병원장 화쯔위(华子瑜)는 "소아과 AI 홈닥터의 도입은 소아 환자와 보호자에게 AI 기반의 질병 분석, 검사 결과 해석, 건강 상담, 맞춤형 건강 기록 작성 등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소아 환자 맞춤형 건강 기록을 작성 하며, 건강 정보를 자동 업데이트함으로써 응답의 포괄성, 정확성, 연속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충아·샤오이 닥터' AI 시스템은 소아과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참여하여 구축한 근거 기반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진료 가이드라인이나 컨센서스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 의료 AI 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 환각(hallucination)' 리스크를 크게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번 AI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소아 의료 서비스를 실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관리 모델로 향후 중국 전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커촹중궈)

■ 알리바바가 대규모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채용에 나섰다.

알리바바 인터내셔널(阿里国际)이 4월 7일 자사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도 캠퍼스리크루팅 전형을 발표하며, 전체 채용 직무의 80% 이상을 AI 관련 분야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채용 대상은 AI 알고리즘, 연구개발(R&D), AI 제품 관리 등으로, 전 세계 우수 AI 인재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채용 확대는 최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 AI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고도화한 성과에 따른 조치다. 알리바바는 지난 1년간 무역 분야에 특화된 AI 검색엔진 '아씨오(Accio)'를 선보였으며, AI 에이전트 기술을 기반으로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라



주간 중국창업 420 호 [3]

자다(Lazada), 다라즈(Daraz) 등의 플랫폼에 AI 기능을 탑재해, AI 호출량이 100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은 이번 캠퍼스 리크루팅과 함께, 새로운 글로벌 AI 인재 채용 전략인 '브라보(Bravo) 102'도 공개했다. '브라보 102'는 기존의 직무 기반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면접 합격이후 프로젝트와 소속 팀을 배정받는 시스템이다. 알고리즘, 엔지니어링 등 AI 기술 간 경계가모호해지는 산업 추세를 반영해, 초기부터 유연한 포지셔닝을 통해 인재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회사 측은 "글로벌 AI 경진대회 수상자나 우수한 학술 성과를 보유한 인재는 물론, 관련 인턴 경험이 없는 지원자라도 AI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갖춘 풀스택 개발자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은 중국 및 해외 주요 대학에서 캠퍼스 리크루팅 설명회를 진행하여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푸단대학, 저장대학, 난징대학, MIT, 싱가포르국립대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4월 7일 시안교통대, 4월 10일 둥난대학, 4월 11일 난징대, 4월 14일 상하이교통대 등에서 추가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채용 확대는 알리바바가 AI 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인력 구조 재정비 이후 첫 본격적인 채용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최근 홍콩에서 열린 HSBC 글로벌투자 서밋에서 차이충신(蔡崇信) 알리바바 이사회 의장은 "알리바바의 현재 인력 규모는 최저점에 도달했으며, 앞으로 채용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융밍(吴泳铭) 알리바바 그룹 CEO 는 실적 발표 이후 열린 애널리스트 콜을 통해 "향후 3 년간 AI 전략을 중심으로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 AI 기초 모델 플랫폼 및 AI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존 사업의 AI 기반 전환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진롱제이)

■ 中, '고순도 석영' 신종 광물로 공식 발표

중국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는 지난 10 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중국광물자원법 실시세칙'에 근거한 신종 광물로 '고순도 석영광(高纯石英矿)'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고순도 석영광'은 중국에서 등록된 174 번째 신종 광물이 되었다.

이번에 신종 광물로 공식 인정된 고순도 석영광은 선광 및 정제 과정을 거친 후의 이산화규소 (SiO₂) 순도가 무려 99.995%에 달하는 고순도 원료로, 반도체 및 태양광 등 첨단 기술 산업에



핵심적으로 활용가능하다. 이번 고순도 석영광의 발견은 그동안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고순도 석영 소재의 국산화를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자연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허난성 둥친링(东秦岭) 지역과 신장 아러타이(阿勒泰) 지역 등지에서 새로운 고순도 석영광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향후 전략 광물 확보의 주요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관련 기업 및 연구 기관들은 고순도 석영광의 정제 기술 개발에 주력해왔으며, 4N5(99.995%)급 이상의 파일럿 제품 확보에 성공한 데 이어, 일부 샘플은 4N8(99.998%)급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자원부 관계자는 "고순도 석영광을 향후 전략적 광물 자원 목록에 포함할 예정이며, 해당 광물의 채굴, 가공,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 및 산업화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광물 자원 조사, 정밀 탐사, 고도 정제 기술, 표적 불순물 제거 등 전반적인 기술 향상으로도 이어지며, 이에 따라 중국은 본토 자원과 기술 기반으로 고순도 석영사 생산의 산업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중국의 자원 안보 강화는 물론, 반도체·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신흥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커촹중궈)

참고자료

- ▶ 르징중원망(日经中文网). 스탠퍼드 조사: 중미 최고 AI 모델 간 성능 차이 9.3%에서 1.7%로 https://mp.weixin.qq.com/s/ZpQyjvsa1TkTx-e9W77sHA
- ▶ 커촹중궈(科创中国). 충칭의 한 병원 소아과 AI 가정의 출시, 24 시간 질병 분석 제공 https://mp.weixin.qq.com/s/mtL3W0Y58dXH-4lzwEX15g
- ▶ 진룽제이(金融界). AI 인재 쟁탈전,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대규모 캠퍼스 채용 개시, 그 중 80%가 AI 직위 https://baijiahao.baidu.com/s?id=1828728736135291493&wfr=spider&for=pc
- ▶ 커촹중궈(科创中国). 중요 발표!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상황에서 벗어나 https://mp.weixin.qq.com/s/41blD6qClixfeKHM_dgR9A



주간 중국창업 420 호 [5]

CHINA 창업

1. [산업분석] 2024 년 중국 산업 자동화 장비 산업 발전 현황

산업 자동화 장비 개요

산업 자동화란, 기계 장비나 생산 공정이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측정, 제어 등의 정보 처리와 공정 관리를 예정된 목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산업 자동화 장비는 이러한 산업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며, 기계공학, 전기 제어, 센서 기술, 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시스템 등 기술을 융합해 생산 제조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끌어올리고, 생산 과정에서의 인력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발전 배경

■ 정책 환경

최근 중국은 수년간 산업 자동화 장비의 산업화 정책과 발전 지침을 여처 차례 발표해왔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은 산업 내 경쟁 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시장 점유 율은 강력한 자체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제품 업그레이드 주기가 빠른 기업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표 1. 산업 자동화 장비 관련 정책

| 일자 | 정책 명칠 | 주요 내용 |
|--|--|--|
| 2022 14 2 81 | 산업구조조정 지침 목록(2024 년판) | 스마트 탐지 장비 및 계측기(디지털 비접촉 정밀 측정, 온라인 비파괴 검사, |
| 2023 년 2 월 | 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24年本) | 레이저 추적 측정 등 포함)의 개발을 장려한다. |
| | | 2025년까지 스마트 탐지 기술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분야의 제조 공정 요구를 |
| | 스마트 탐지 장비 산업 발전 행동계획(2023-2025 | 충족시키고, 핵심 구성 요소, 전용 소프트웨어 및 완제품 장비의 공급 능력이 |
| 2023 년 2 월 | 년) | 크게 향상되고, 핵심 분야에서 스마트 탐지 장비의 시범 성과 및 대규모 응용 |
| | 智能检测装备产业发展行动计划(2023-2025年) | 성과가 뚜렷하며, 산업 생태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고 스마트 제조의 개발 요 |
| | | 구가 기본적으로 충족될 것이다. |
| | | 원자재, 장비 제조, 소비재, 전자 정보 등의 분야의 하위 산업에 집중하고, 설 |
| 2022 년 9월 | 스마트 제조 시범 행동 실시방안 智能制造试点示范行动实施方案 | 계, 생산,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제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 |
| | 省 化 | 를 구축한다. |
| | | 주요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스마트 제조 프로젝트를 심 |
| 2021 년 12 월 | '14 차 5 개년 규획' 디지털경제 발전규획 "十四五"数字经济发展规划 | 도 있게 추진하며, 장비 디지털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스마트 제조 시범에 대 |
| | 四五 数十红07及胶观划 | 한 특별 조치를 취하고, 국가 스마트 제조 표준 체계를 완비한다. |
| 2021 년 12 월 "14 차 5 개년 규획" 스마트 제조 개발 "十四五" 智能制造发展规划 | | 기본 부품 및 장치의 범용 스마트 제조 장비, 특수 스마트 제조 장비, 디지털 |
| | "14 차 5 개년 규획" 스마트 제조 개발 규획 "十四五"智能制造发展规划 | 트윈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스마트 제조 장비 등 4 개 분야를 |
| | |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 장비를 적극적으로 발전한다. 2025 년까지 산업 발전을 |
| | | 선도하는 스마트 제조 시범공장 500 여 개를 건설하고, 150 여 개의 전문 스마 |
| | | 트 제조 시스템 솔루션 공급업체를 육성하며, 스마트 제조 발전에 적응하는 |
| | | 표준 시스템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한다. |



주간 중국창업 420 호 [6]

■ 사회적 환경

중국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민 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인건비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동시에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중국의 인구 보너스 효과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2023 년 중국의 15~64 세 노동 인구는 96,228 만 명으로, 2016 년에 비해 4,715 만 명 감소했다. 전체 인구 중 노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예로 들면, 15~64 세 노동 인구 비중은 2016 년 72.5%에서 2023 년에는 68.3%로 하락해, 중국의 노동력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제조업 종사자의 임금 상승과 노동력 부족으로 제조 기업들은 점차 자동화 장비로 전환될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의 자동화 장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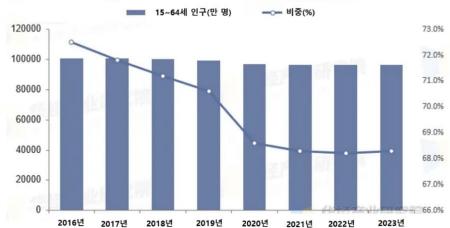


도표 2. 2016-2023 년 중국 노동 인구 수량 및 전체 인구 중 노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현황

산업 자동화 장비 산업 체인

산업 자동화 장비 산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업스트림 산업 시장이 비교적 성숙되어 있고 제품 공급도 안정적인 편이다. 이에 해당 산업의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수요는 원활히 충족될 수있다. 또한 산업 자동화 장비는 매우 광범위한 다운스트림 응용 분야를 갖춰,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

| 업스트림 | 미드스트림 | 다운스트림 |
|--------|------------------------|-------|
| 전자제품 | | 전자 산업 |
| 기구 | 산업 자동화 장비 | 통신 |
| 부품 가공 | 전립 시 으 차 요미 | 에너지 |
| 기본자재 등 | | 자동차 등 |

도표 3. 산업 자동화 장비 산업 체인

주간 중국창업 420 호 [7]

산업 자동화 장비 산업의 발전 현황

■ 글로벌 산업 자동화 장비 시장 규모

인간-기계 상호작용(HMI), 산업용 로봇, 사물인터넷, 5G 통신, 신소재 등 기술이 점차 스마트 화, 무인화, 통합화의 방향으로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 제조 산업의 고도화 수요가 산업 자동화 장비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2 년까지 전 세계 산업 자동화 장비 시 장 규모는 2,317.8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8~2023 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약 7.4% 에 달했다.



도표 4. 2018-2023 년 글로벌 산업 자동화 장비 시장 규모 현황

■ 중국 산업 자동화 장비 시장 규모

스마트 장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중국의 산업 자동화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0 년간 산업 자동화의 고속 성장을 실현했으며, 제조업의 총생산액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한다. 2023 년 중국의 산업 자동화 시장 규모는 약 2,795 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2018~2023 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약 8.84%에 달했다.



주간 중국창업 420 호 [8]

■ 중국 산업 자동화 장비의 로컬 브랜드 시장 점유율

중국의 산업 자동화 장비 산업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외국 브랜드와 여전한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국가 차원에서 산업 자동화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2025 년 까지 핵심 기초 부품, 핵심 기초 소재, 관련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70% 이상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완성도 높은 산업 기술 인프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표 6. 2018-2023 년 중국 산업 자동화 장비의 로컬 브랜드 시장 점유율

산업 자동화 장비 산업의 경쟁 구도

■ 산업 경쟁 구조

현재 글로벌 산업 자동화 시장은 지멘스(西门子), 야스가와(安川), 파나소닉(松下), 미쓰비시 (三菱) 등 외국계 브랜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기업은 선진 기술력과 완성도 높은 제품군을 기반으로 글로벌 산업 자동화 제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방대한 고객군과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국가 정책의 강력한 지원과 내수 수요 증가로 인해, 중국의 자동화 장비 제조 기업들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을 보유한 자동화 장비 제조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주간 중국창업 420 호 [9]

도표 7. 중국 산업 자동화 장비 산업의 경쟁 구도

| 기업 명칭 | 소개 | | |
|------------------|--|--|--|
| 01510171 | 윈타이리는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주로 정밀 테스트 장비 및 산업 자동화 장비의 연구 개 | | |
| 윈타이리 运泰利 | 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 | |
| <u></u> | 주요 제품으로는 자동조립장비, 전자동 조립 및 테스트 라인 등이 있다. | | |
| | 보중징공은 2001 년에 설립되었으며, 주로 자동화 장비, 자동화 유연 생산 라인, 자동화 핵심 | | |
| 보중징공 | 부품, 공정용 지그와 고정구 등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고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 |
| 博众精工 | 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 |
| | 주요 제품으로는 자동화 장비(라인), 고정 제품, 핵심 구성품 등이 있다. | | |
| | 보지에주식회사는 2005 년에 설립되었으며, 산업 자동화 장비 및 부속품의 연구 개발, 생산, | | |
| 보지에주식회사 | 판매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에 중점을 둔 첨단 기술 기업이다. | | |
| 博杰股份 | 주요 제품으로는 ICT 테스트 장비, FCT 테스트 장비, 센서 테스트 장비, 음향 테스트 장비, 자 | | |
| | 동 접착기, 레이저 자동 조립 장비, 홀더 고정 장치 등이 있다. | | |
| | 사이텅주식회사는 2007 년에 설립되었으며, 주로 스마트 제조 장비의 연구 개발, 설계, 생산, | | |
| 사이텅주식회사 | 판매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이 지능형 생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솔루션을 | | |
| 赛腾股份 | 제공하고 있다. | | |
| | 주요 제품은 비표준 자동화 장비와 표준화된 자동화 장비가 있다. | | |
| | 옌마이테크놀로지는 2012 년에 설립되었으며, 스마트 제조 분야의 산업 자동화, 스마트 테스 | | |
| | 트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연구 개발, 설계, 생산, 판매 및 관련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
| 옌마이테크놀로지 燕麦科技 | 주요 제품으로는 범용 기능 테스트 픽스처, 특수 기능 테스트 픽스처, 자동화된 캐리어용 테 | | |
| 然久行汉 | 스트 픽스처, 다중 프로세스 테스트 장비, 자동화된 테스트 시스템, 지능형 시각 검사 장비 | | |
| | 바늘 몰드, 캐리어 보드, 프로브, 제어 보드, 테스트 보드 등이 있다. | | |

■ 주요 기업 소개

보중징공(博众精工)은 기술의 연구개발과 혁신에 중점을 둔 기술 중심 기업으로, 설립 이후 스마트 제조 장비 분야에 꾸준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기업은 자동화 장비, 자동화 유연 생산라인, 자동화 핵심 부품, 공정용 지그와 고정구 등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고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23 년 총 매출은 약 48.3 억 위안이며, 그중 자동화 장비 부문 매출은 약 41.5 억 위안에 달했다.

도표 8 2019-2023 년 보증징공 매출 현황
■ 매출(억 위안)

50
40
20
1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주간 중국창업 420 호 【10】

산업 자동화 장비 산업의 발전 추세

■ 인구 구조 변화로 자동화 장비 수요 증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14 차 5 개년 규획' 기간 경도 고령화에서 중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노동 인구 부족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노동 연령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중국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고, 과거처럼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경쟁전략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은 장기적인 발전 흐름이 될 것이며, 앞으로 자동화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 산업 구조 고도화로 인한 기업의 자동화 수준 향상

자동화 설비 시스템이란, 로봇이나 컴퓨터수치제어(CNC) 기계를 중심으로,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모든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한 대형 자동화 유연 생산라인을 의미한다. 이는 첨단 제조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 라인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스마트화를 구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업그레이드를 위한 산업 인프라 역할을 한다. 가장 큰 장점은 생산의 효율성과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으로, 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 신기술을 통한 스마트 제조와 산업 자동화 수요 촉진

최근 중국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5G 통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들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과학적 개념이나 기초 과학의 단계를 넘어 상업적 응용 단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은 관련 산업과도점점 더 깊이 융합되고 있다. 신기술이 산업 자동화 분야에 점점 더 널리 활용되면서, 생산 제조의 유연화, 스마트화, 고도 통합화, 제품 개발 주기의 단축, 자원·에너지 소비·운영 비용의 절감, 생산 효율의 향상 등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 제조 산업에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도입되면서, 자동화 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2024 년 중국 산업 자동화 장비 산업 발전 현황 및 추세 분석, 정책 지원과 인구 압력이 산업의 빠른 발전을 촉진(2024 年中国工业自动化设备行业发展现状及趋势分析, 政策扶持与人口压力双驱推动行业快速发展). (25.04.10) https://mp.weixin.qq.com/s/2RVEQxXvz8RpXZZQdEjXvw



주간 중국창업 420 호 【11】

2. [정책분석] 中 9 개 도시 V2G 시범사업 본격화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4개 부처는 <차량-전력망 연계 규모화 응용 시범사업에 관한 통지(关于公布首批车网互动规模化应用试点的通知)>를 발표하며 상하이(上海), 창저우(常州), 허페이(合肥) 등 9개 시범도시와 30개 시범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 NO. | 시범도시 | 소속 성(省) |
|-----|----------|---------|
| 1 | 상하이(上海) | 상하이(上海) |
| 2 | 창저우(常州) | 장쑤(江苏) |
| 3 | 허페이(合肥) | 안후이(安徽) |
| 4 | 화이베이(淮北) | 안후이(安徽) |
| 5 | 광저우(广州) | 광둥(广东) |
| 6 | 선전(深圳) | 광둥(广东) |
| 7 | 하이커우(海口) | 하이난(海南) |
| 8 | 충칭(重庆) | 충칭(重庆) |
| 9 | 쿤밍(昆明) | 윈난(云南) |

도표 1. 9 개 시범도시

프로젝트명을 살펴보면 V2G(Vehicle-to-Grid)가 이번 응용 시범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되었다.

상하이의 경우 '신형 전력부하 관리 시스템 기반 도시 차량-전력망 연계 종합 시범 프로젝트(基于新型电力负荷管理系统的城市车网互动综合试点项目)', '개인 응답 기반 전 시나리오 V2G 충전교체 스테이션 건설 시범 프로젝트(基于个人响应的全场景 V2G 充换电站建设试点项目)' 등이 포함되어 있다.

V2G(Vehicle to Grid)는 차량과 전력망 간의 양방향 상호작용 기술을 의미한다. V2G 기술은 전기차와 전력망 간 양방향 에너지 전송과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전기차를 '공유 충전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기술의 핵심은 전기차가 단순히 충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차량에 저장된 전기를 다시 전력망에 공급함으로써 전력망의 부하를 조절하고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력 수요의 피크를 낮추고 수요가 적을때 보완하는(削峰填谷)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상하이 중형트럭 충전소 시범사업에서는 전기 트럭이 야간 운행 중단 시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고, 주간 피크 시간대에는 트럭 충전 수요를 우선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500 대의 신에너지 대형 화물차가 V2G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으며, 이들 차량의 누적 배터리 용량은 20만 kWh로, 연간 방전량은 26만 kWh에 이른다. 이는 500가구의 1년치 전력 소비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주간 중국창업 420 호 [12]

통지는 2025 년 말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국가에너지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 등 관련 부처는 향후 V2G 시범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시범 사업 명단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전력망 기업들은 V2G 시범 사업의 핵심 주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당국은 전력 망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시범 사업 참여와 함께, 전력망 접속, 전기요금 계측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전력망 운영 방식의 최적화를 통해 V2G 기술이 친환경 전력 소비 확대와 전력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근 중국 유관 부처들은 V2G 기술 개발에 대한 뚜렷한 신호를 내보이고 있다. 지난 3 월 29 일 열린 '중국 전기차 100 인 포럼(中国电动汽车百人会论坛)'에서 국가에너지국의 총감 황쉐농 (黄学农)은 "국가에너지국은 충전 인프라 산업과 전기차 산업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선제적이고 과학적이며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충전 인프라 시스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V2G 규모화 확대의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3 월 28 일, 난팡전력망공사(南方电网公司)는 중국 최초로 광둥성(广东), 광시(广西), 윈난(云南), 구이저우(贵州), 하이난(海南) 5 개성을 아우르는 V2G 광역 연계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10 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참여했고, 상호교환된 전력량은 50 만 kWh 이상에 달했다. 특히, 한 대의 자율주행 전기차가 충전소에 진입하자 충전 로봇이 자동으로 차량을 인식하고 충전과 결제를 완료했으며, 전체 과정은 단 80 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

중국의 충전 인프라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2025 년 1 월 기준 전국 충전 인프라 누적 수량은 1,321.3 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9.1% 증가했다.

중신증권(中信证券)에 따르면, 전기차는 전력 소비와 에너지 저장이라는 이중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차 보유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V2G 기술은 전기차의 대량 충전이 배전망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전력 시스템의 수요 변화 대응에도 유연하게 참여해,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와 함께 일정 수준의 수익도 창출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자료

▶ 차이롄서(财联社). 전국 차량-전력망 연계 시범 프로젝트 확정: 상하이 등 9개 시범도시 전기차를 '공유 충전기'로 활용(全国车网互动首批试点揭晓 上海等9个城市在列 电动车变"共享充电宝"). (25.04.11) https://www.cls.cn/detail/1991120



주간 중국창업 420 호 [13]

3. [기업소개] RF 프론트엔드 칩 설계 기업 앙루이웨이(昂瑞微) 커촹반 IPO 신청 개요

상하이증권거래소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내 RF 프론트엔드 칩 설계 분야 3 위 기업인 '베이징 앙루이웨이전자기술유한공사(北京昂瑞微电子技术股份有限公司, 이하 앙루이웨이)'가 과학기술혁신주(커촹반,科创板)상장을 위한 IPO 신청이 최근 접수되어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앙루이웨이는 무선 주파수(RF) 프론트엔드 칩 설계에 특화된 기업으로, 5G 통신, 사물인터넷 (IoT), 스마트폰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며, 국내외 유수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 및 공급망 구축을 통해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RF 프론트엔드 칩 시장의 약 60%가 해외 대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지만, 앙루이웨이의 부상은 중국의 국산화 대체 가능성에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앙루이웨이의 커촹반 상장이 중국 내 반도체 자립 전략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며, 앙루이웨이의 상장 심사 결과와 향후 공모 일정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함께 이끌어낸 IPO

앙루이웨이의 창업자인 첸용쉐(钱永学)는 올해 47 세로, 마이크로파 및 RF 분야에서 20 년 넘게 활동해온 전문가다. 그는 후난대학교(湖南大学)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중국과학원 미전자연구소 (IMECAS)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졸업 후에는 VIA 테크놀로지, RDA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비셩(毕昇)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에서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맡으며 풍부한 업계 경험을 쌓았다.

2012 년 첸용쉐는 양칭화(杨清华)와 함께 중커한톈샤(中科汉天下)를 공동 설립했다. 2019 년 기업명을 앙루이웨이 전자(昂瑞微电子)로 변경하고 2020년 기업 조직 형태를 주식제로 전환하였다. 앙루이웨이는 CMOS 공정을 기반으로 한 전력 증폭기(CMOS PA)로 사업을 일으켰고, 2015 년에는 3G 시리즈 제품 월 평균 출하량이 800 만 세트에 달하며,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 1 위를 기록했다.



사진 1. 앙루이웨이의 창업자인 첸융쉐

현재 앙루이웨이는 2G/3G/4G/5G 전 시리즈 RF 프론트엔드 칩, 필터, 사물인터넷용 SoC 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출하량은 10 억 개를 초과한다. 주요 고객

주간 중국창업 420 호 【14】

사로는 아너(Honor), 삼성, 비보(vivo), 샤오미(小米), 오포(OPPO) 등 글로벌 상위 10 대 스마트폰 브랜드(애플 제외)는 물론, 알리바바, HP, 카이디스(凯迪仕) 등 산업·의료·IoT 분야 기업들이 있다.

루이서우(睿兽) 분석에 따르면, 앙루이웨이는 설립 이후 10 차례 이상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으며, 화웨이의 허블투자(哈勃投资), 샤오미 창장산업펀드(长江产业基金), 레노버 벤처캐피탈(联想 创投), 화덩 인터내셔널(华登国际) 등 유명 투자 기관의 투자를 받았다.

| 라운드 | 일자 | 투자 금액 | 투자자 |
|--------------------------|------------|------------|---------------------------------|
| E+라운드 | 2021-09-30 | 미공개 | 선전 캐피탈 그룹 |
| | | | 프로캐피탈, 양쯔장펀드, 장쑤 CMB 산업펀드관리유한공 |
| D+라운드 | 2021-09-30 | 미공개 | 사, 중국해외벤처캐피탈, 선전캐피탈그룹, CMB 인터내셔 |
| | | | 널캐피탈, 중관촌과학기술단지, 무화투자 |
| | | | 허블투자, 창시 캐피탈, 송허 캐피털, 주이위안 벤처 캐 |
| レゴロロ | 2020 00 21 | 미고게 | 피탈, 칭화 홀딩스 진신 캐피탈, 레노버 벤처캐피탈, 화 |
| D 라운드 2020-09-21 미공기 | 2020-09-21 | 미공개 | 덩 인터내셔널, 딩샹캐피탈, 중칭헝후이, 중관춘발전그 |
| | | 룹, 지석캐피탈 | |
| Pre-D 라운드 | 2020-02-24 | 310 만 위안 | 샤오미 창장산업펀드 |
| C+라운드 | 2019-11-19 | 3,000 만 위안 | 훈푸 투자 |
| C 라운드 | 2019-08-05 | 3,000 만 위안 | 훈푸 투자, 웨슈산업펀드(우위) |
| B+라운드 | 2018-06-22 | 5,000 만 위안 | 중국 해외 벤처 캐피털 |
| B 라운드 | 2017-08-29 | 2,000 만 위안 | 가젤 펀드 |
| A 라운드 | 2015-03-23 | 1,000 만 위안 | 루이펑 투자 |
| 엔젤 라운드 | 2013-10-01 | 300 만 위안 | 국커투자 |

도표 1. 앙루이웨이 투자 유치 현황

이 중 샤오미 창장펀드와 허블투자는 각각 지분 4.16%를 보유하며 5 대, 6 대 주주로 올라 있다.

샤오미와 화웨이는 과거에도 고성능 아날로그 칩 기업 나신웨이(纳芯微), 차량용 통신 칩 기업 위타이웨이(裕太微) 등에 공동 투자했으며, 성공적으로 IPO를 실현한 바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분 구조를 보면, 앙루이웨이는 분산된 주주 구조를 갖추고 있어 단일 주주의 의결권이 30%를 넘지 않으며, 어떤 주주도 단독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제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공시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창업자 첸융쉐는 직접 지분 보유 및 주주 간의 공동행동합의를 통해 IPO 전 기준 총 62.4309%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어, 실질적인 기업의 실제 지배자로 분석되고 있다.



주간 중국창업 420 호 【15】

연매출 21 억 위안, 매출총이익률 20%, 중국 기업 중 3 위 차지

앙루이웨이는 칩의 연구개발과 설계에 집중하며, 생산 공정은 제 3 자에게 위탁하는 팹리스 (Fabless) 경영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2024 후룬 글로벌 유니콘 리스트(2024 · 胡润全球独角兽榜)>에 따르면, 앙루이웨이의 기업 가치는 약 85 억 위안으로, 976 위에 올랐다.



사진 2. 昂瑞微

공시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앙루이웨이의 매출은 2022 년 9.23 억 위안, 2023 년 16.95 억위안, 2024 년 21.01 억 위안으로,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50.88%에 달한다. 빠른 매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흑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각각 2.9억 위안, 4.9억 위안, 6,470만 위안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2024 년에는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매출총이익률은 2022 년 17.06%에서 2024 년 20.22%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업계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기업 매출의 80% 이상은 RF 프론트엔드 칩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앙루이웨이는 상위 5 대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2022 년~2024 년 상위 5 개 고객사가 기업에 기여한 매출은 각각 6.5 억 위안, 12.8 억 위안, 14.6 억 위안이었으며, 이는 같은 해 전체 매출의 70.44%, 75.84%, 69.52%를 차지했다.

연구개발 투자 측면에서 보면, 동기간 연구개발비는 각각 2.7 억, 3.96 억, 3.14 억 위안이었으며, 매출 대비 비중은 29.25%, 23.38%, 14.94%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동종 업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현재 글로벌 RF 프론트엔드 시장은 스카이웍스(Skyworks), 코보(Qorvo), 브로드컴 (Broadcom), 무라타(Murata)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국내 시장 기준으로는 앙루이웨이가 2024 년 매출 기준 3 위를 기록하였고, 이는 줘성웨이(卓胜微), 웨이제창신(唯捷创芯)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시장조사기관 욜(Yole)의 예측에 따르면, 글로벌 RF 프론트엔드 시장 규모는 2022 년 177 억 달러에서 2028 년에는 247 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5.7%에 달할 것 으로 추산된다.



주간 중국창업 420 호 [16]

앙루이웨이는 이번 IPO를 통해 약 20.67 억 위안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이 자금은 5G RF 프론트엔드 칩 및 모듈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고도화, RF SoC 칩 연구개발, 본사 및 R&D센터 건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중국 반도체 업계의 '황푸군관학교(黄埔军校)'에서 배출된 창업자들

앙루이웨이의 회장 첸융쉐(钱永学)는 과거 쯔광잔루이(紫光展锐) 계열사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 기업은 중국 반도체 업계의 수많은 창업자와 업계 리더를 길러낸 곳으로, 중국 반도체계의 '황푸군관학교'라 불린다.

쯔광잔루이 출신 창업자들은 지금까지 3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을 설립했으며, 대표적으로 아오제테크(翱捷科技), 헝쉰테크(恒玄科技), 수이위안테크(燧原科技)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은 오늘 날 중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아오제커지의 창업자인 다이바오자(戴保家)는 쯔광잔루이 출신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2004년 귀국하여 RDA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锐迪科)를 설립했으며, 중국 최초의 SCDMA RF 칩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RDA 는 2010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었으며, 2014년 쯔광그룹에 인수된 후, 잔쉰(展讯)과 합병되어 현재의 쯔광잔루이(紫光展锐)가 탄생하게 되었다.

다이바오자는 RDA(锐迪科)에서 이직 한 후, 2015 년 아오제커지(翱捷科技)를 새롭게 창립했다.

아오제커지는 현재까지 10 차례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으며, 알리바바, 홍산자본(红杉中国), 가오링캐피털(高瓴创投), IDG 캐피털, 중국인터넷투자펀트(中网投) 등 유명 투자 기관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 도표 2. 이 | ト오제커 기 | 기 투자 | 유치 | 혀핤 |
|---------|---------------|------|----|----|
| | | | | |

| 라운드 | 일자 | 투자 금액 | 투자자 |
|-----------|------------|------------|-------------------------------|
| 상장회사 | 2022-03-31 | 미공개 | 하이통 카이위안 |
| 고정증가 | 2022-03-31 | 40/11 | 어어를 가하되면 |
| IPO(A 주- | | | |
| 상하이증권거래소- | 2022-01-14 | 68.83 억 위안 | 공개 발행 |
| 커촹반) | | | |
| D++라운드 | 2020-07-15 | 미공개 | 위안허 푸화 |
| | | | 중국인터넷투자펀트, ICL 벤처스, 장강과학기술투자, |
| | | |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주식펀드 레이크사이드 인터내셔널, |
| D+라운드 | 2020-04-30 | 1.19 억 달러 | 훙산 브로드밴드 펀드, 상하이 과학기술혁신그룹, 푸동 |
| | | | 신흥산업투자, 주하이 가오링(주하이 가오링 수안헝 |
| | | | 지분투자조합(유한합자회사)) |



| D 라운드 | 2020-02-25 | 미공개 | 지우유펀드, 싱정투자, 샤오미창장산업펀드, 위안허 리화 | | |
|-----------|------------|--------|---------------------------------|--|--|
| C+라운드 | 2019-09-09 | 미공개 | 안촹 액셀러레이터 | | |
| C 라운드 | 2019-04-27 | 수 억 위안 | 에베레스트 벤처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주식펀드, 롄셩 | | |
| | | | 캐피털, 화쉬 펀드 쓰촨 솽마, 판허 캐피털 | | |
| B 라운드 | 2018-07-13 | 1 억 달러 | 알리바바 (알리바바 (중국) 네트워크 기술 유한 회사), | | |
| | | | 쓰촨성 쌍마, 화덩 인터내셔널, 자성 펀드 | | |
| A 라운드 | 2017-08-08 | 미공개 | 알리바바 (알리바바 (중국) 네트워크 기술 유한 회사), | | |
| | | | 선전 캐피탈 그룹 | | |
| pre-A 라운드 | 2016-12-01 | 미공개 | 화신 벤처 | | |

2022 년 2월에는 커촹반(科创板)에 상장됐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410억 위안 이상에 달한다. 또 다른 사례로 헝쉰테크(恒玄科技)의 창업자인 장량(张亮)은 RDA 의 핵심 임원 출신으로, 오디 오 칩 개발에 주력하며 2020년 커촹반에 상장되었고, 이는 중국 집적회로 설계 기업 가운데 가 장 빠른 상장 사례로 기록되었다.

또한, RDA 의 전 CTO 였던 웨이슈란(魏述然)은 아이커웨이(爱科微)를 설립했으며, 그 외에도 첸쥔(陈俊), 자빈(贾斌), 자오리둥(赵立东) 등 여러 인재들이 각각 이췌반도체(宜确半导体), 카이위 안통신(开元通信), 수이위안커지(燧原科技) 등 기업을 설립했다.

한 투자자는 쯔광잔루이 출신 창업자들의 성공 요인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국산화대체 수요를 기회로 시장에 진입했고, 둘째 중국 내수 시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한 전략을 펼쳤다는 점이다. 이처럼 잔루이 출신 창업자들은 현재도 중국 반도체 산업의 최전선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 촹예방(创业邦). 샤오미 화웨이가 다시 손잡았다! 연수입 21 억 위안, 중국과학원 우등생이 칩 IPO 성공(小米华为再联手! 年入 21 亿,中科院学霸干出一个芯片 IPO). (25.04.11) https://mp.weixin.gq.com/s/hCwcWArs-SusqxFycliBf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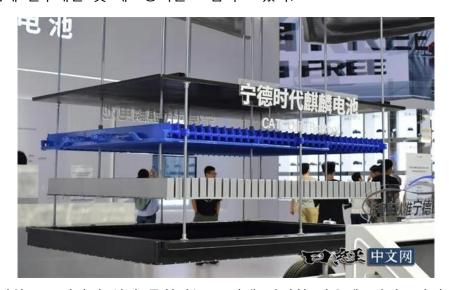
주간 중국창업 420 호 [18]

4. [기업소개] 닝더스다이, 고성능 배터리로 공세 시작

개요

닝더스다이신에너지과학기술유한공사(宁德时代新能源科技股份有限公司, 이하 닝더스다이)는 2011 년 설립된 세계적인 신에너지 혁신 기술 기업으로, 글로벌 신에너지 응용 분야에 최고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동력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중국을 선도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닝더스다이는 동력 및 에너지 저장 배터리 분야, 소재, 배터리 셀, 배터리 시스템, 배터리 재활용 등 산업체 연구개발 및 제조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EV) 시장의 성장 둔화라는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닝더스다이(宁德时代, CATL)는 고성능 배터리를 연달아 출시하며 수익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배터리 탑재량 기준, 글로벌시장 점유율은 약 40%에 달하며, 향후 생산력을 더욱 확대해 선도적인 입지를 굳건히 다질 계획이다.

시장 점유율

한국의 시장조사기관 SNE 리서치(SNE Research)에 따르면, 2024년 닝더스다이의 글로벌 차량용 배터리 탑재량 점유율은 37.9%로, 2023년보다 1.3%p 상승하며 8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선완흥위안(申万宏源) 증권은 2025년에도 닝더스다이의 점유율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간 중국창업 420 호 [19]

수익성

2024 회계연도 닝더스다이의 매출은 3,620 억 위안으로, 전년비 10%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15% 증가한 507 억 위안을 기록했다.



이는 2014 년 실적 공개 이후 매출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지만,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수익성은 뚜렷이 개선됐다. 배터리 출하량에서 중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2024 년 회계연도에 매출과 이익이 모두 동반 하락했다.

차량용 배터리와 관련해, 원재료인 탄산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배터리 판매가가 인하될수 밖에 없었다. 한편, 유럽에서는 2024년 순수 전기차(EV) 판매량이 처음으로 전년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미국에서도 EV의 보급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모습을 보이면서, 각 제조사들은 EV 투자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미국 테슬라(特斯拉) 역시 2024년 판매량에 감소세가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 대비, 닝더스다이는 유럽과 미국으로의 배터리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EV 시장 둔화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려 순이익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특히 차량용 배터리 사업의 매출 총이익률은 5.8%p 상승해 23.9%를 기록했으며, 두 가지 고성능 차량용 배터리의 공급 확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치린(麒麟) 배터리: 2022 년 출시된 삼원계 리튬 배터리로, 고속 충전이 가능하며 최대 주행 거리는 1,000km 에 달한다. 현재 지커(极氪), 샤오미, 리샹(理想) 등 브랜드에 공급되고 있다.



| 242. 222 768 111 1 17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 | | | |
|--|-----------------|------|--------------|--|--|--|
| 순위 | 기업 명칭 | 점유율 | 2023 년 대비 | | | |
| 1 | 닝더스다이(CATL, 중국) | 37.9 | 1.3 | | | |
| 2 | 비야디(BYD, 중국) | 17.2 | 1.3 | | | |
| 3 | LG 신에너지(한국) | 10.8 | ▲2.7 | | | |
| 4 | 중촹신항(CALB, 중국) | 4.4 | ▲0.4 | | | |
| 5 | SKOn(한국) | 4.4 | ▲0.5 | | | |
| 6 | 마츠시타(일본) | 3.9 | ▲2.2 | | | |
| 7 | 삼성 SDI(한국) | 3.3 | ▲ 1.4 | | | |

도표 2. 글로벌 차량용 배터리 탑재량 점유율

선싱(神行) 배터리: 2023 년 출시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시리즈로, 최대 주행거리는 700km 이며, 10분 충전 시 400km 주행이 가능하다. 닝더스다이는 이를 통해 중국 LFP 시장에서 1위 지위를 회복하였다.

연구개발 및 생산 능력 확대

2024년 말 기준 닝더스다이의 기술 인력은 2만 346명으로, 전년비 1.3% 감소했지만, 석·박사급 인재 비중은 27.8%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은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V) 전용 배터리인 '샤오야오(骁遥) 배터리'를 출시했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생산력 측면에서, 2024 년 닝더스다이의 총 생산 능력은 676GWh 로, 2019 년 대비 12.8 배증가했다. 여기에 219GWh 추가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은 헝가리와 스페인 등에 공장을 신설하는 등 해외 사업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전과 대응

글로벌 전기차(EV) 시장의 성장 둔화는 업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닝더스다이의 공장 가동률 역시 2021 년 95%에서 2024 년 76.3%로 하락했다. 앞으로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 혁신과 생산 능력 최적화를 통해 성장세를 유지하려는 전략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르징중원망(日经中文网). 닝더스다이 고성능 배터리로 공세 시작(宁德时代以高性能电池发起攻势). (25.04.09)

https://mp.weixin.qq.com/s/_RpORLvGo9reGF8_8lQgBw



주간 중국창업 420 호 [21]

KIC 중국 뉴스

1. KIC 중국, '2025 중관춘포럼' 한중과학기술혁신협력 포럼 개최

2025 년 3월 28일,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가 주최한 '중한 과학기술혁신협력포럼'이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됐다. 2025 중관춘 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중한 양국의 혁신적 협력에 초점을 맞췄으며 양국 정부 부처, 연구 기관, 선도 기업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기술 연구 개발, 산업 응용, 국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개막식에서 이진수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과학기술정보통신관, 양쉐메이(杨雪梅) 중국과학 기술교류센터 부주임, 김현곤 한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류징창(刘景昶) 베이징시과학기 술위원회·중관춘과학단지관리위원회 2 급 순시원(부국장), 김종문 글로벌혁신센터센터 (KIC 중국) 센터장 등이 차례로 축사를 전하며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중한 양국이 이웃 국가로서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광범위한 공동 이익과 협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은 미래를 선도하는 전략적 기술로써 양국 협력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양국이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의 심화를 함께하며 인재 교류에도 적극 나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실제 현장 적용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국 경제사회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협력 기관 간 전략적 협약이 다수 체결되었으며, 한중 양국의 첨단 기술 자원을 통합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발전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중관춘국제전시회유한공사와 KIC 중국은 전략적 협약을 맺고, 상시적인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매년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 포럼'을 공동 개회하며, 한중 과학기술 혁신 교류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측은 더불어 양국의 우수 연구기관, 산업 협회, 혁신 플랫폼 간의 연계를 촉진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들을 중관춘 포럼 글로벌 협력 파트너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브랜드 자원과 글로벌 협력 채널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한중 양국의 최고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로봇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기술 개발, 산업 응용, 윤리 및 안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로봇과 AI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 미래 발전 방향, 그리고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주간 중국창업 420 호 【22】

논의가 이뤄졌고, 전문가들의 미래지향적인 의견과 독창적인 견해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기업 기술 공유 세션에서는 한중 양국의 여러 유명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로봇과 AI 분야에서 거둔 기술 혁신 성과와 응용 사례를 공유했다. 이들 기업들은 로봇 이 스마트 제조, 의료, 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모습과,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 등 획기적인 성과들을 소개했다. 기업 대표들은 한중 양국이 해당 분야에서 높은 상호보완성을 갖추고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산업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KIC 중국의 김종문 대표는 "한중 양국은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탄탄한 협력 기반과 막대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로봇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생산 및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은 한중 양국에 높은 수준의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력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중관춘 포럼은 중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의 교류 협력을 위해 조성한 국가급 플랫폼으로, 이번 행사는 3월 27일~31일간 베이징에서 열렸다. KIC 중국은 한중 간 과학기술 혁신 협력의 가교 역할을 이어가며, 앞으로도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양국간 심도 깊은 협력이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주간 중국창업 420 호 【23】

2. "한중일 ICT 장관회의 7년 만에 재개... KIC 중국, 기술이전 협력 강화



2025 년 4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 2 차관은 제 7차 한중일 ICT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쑤저우를 방문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8년 일본에서 열린 제 6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윈밍(张云明) 차장과 일본 총무성 이마가와 다쿠로(今川拓郎) 상무심의관이 참석했다.

한중일 3국 대표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발전 정책▲차세대 ICT 기술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응용 현황▲향후 공동 과제 등의 다양한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ICT 분야에서의 한중일 3 국의 협력이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현안 해결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실무 부처 간의 협력, 표준화 기구간의 연계, 기업 간의 교류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제 8차 ICT 장관회의를 2026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주간 중국창업 420 호 【24】

KIC 중국 김종문 센터장은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대표단으로 ICT 장관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열린 '한중일 정보통신 혁신 대화 및 산업 연계'행사에도 함께했다. 행사에는 중국 공업정보화부 관련 부서, 장쑤성 통신관리국, 중국정보통신연구원 등 중국 정부 및 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종문 센터장은 상하이기술거래소를 방문해, 한중 기술이전 및 공동 혁신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부센터 조수쥔(邹叔君) 총괄 CEO 는 고품질 혁신관, 상하이 국제 그린·저탄소 개념검증센터의 기술성과 전환 사례, '일대일로' 한중 기술이전 국제공동혁신센터의 단계별 성과 등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차오션(曹申) 부총재와 천차오(陈超) 상하이국제기술거 래시장 총경리도 배석했다.

동부센터는 글로벌 기술이전대회 및 InnoMatch 글로벌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을 기반으로, KIC 중국과도 InnoMatch Demo Day, 아시아-한국 과학기술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기술성과 전환 및 과학기술 교류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IVIM Technology, Peptoid 등 기업에 공동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강도현 제 2 차관은 동부센터의 열정적인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중국의 성과 전환 노력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KIC 중국이 한중 기술이전과 공동 혁신, 인재 교류 등 핵심 분야에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향후 KIC 중국은 '한중 토치 혁신 협력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거버넌스 최 적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교량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간 중국창업 420 호 【25】

행사 정보

| 명칭 | 기간 | 장소 | 분야 |
|---|-----------------------|------|-------|
| 2025 제 10 회 아시아 전력 및 전기공학 학술대회(ACPEE 2025) | 2025.04.15-2025.04.19 | 베이징 | 에너지 |
| 베이징 InfoComm China 2025 정상회의 | 2025.04.16-2025.04.18 | 베이징 | 인공지능 |
| 2025 제 8 회 중국 국제 생물의학 재료 컨퍼런스 및 전시회 | 2025.04.16-2025.04.18 | 베이징 | 생물의학 |
| 2025 년 제 7 회 중국 국제 생명공학 대회 | 2025.04.16-2025.04.18 | 베이징 | 생물의학 |
| 2025 제 97 회 전국자동차부품박람회 | 2025.04.17-2025.04.19 | 스자좡 | 자동차 |
| 2025 중국 스마트 교통 학술 포럼 | 2025.04.18-2025.04.19 | 선전 | 교통 |
| 2025 제 9 회 중국 이우 국제 하드웨어 및 전기제품 박람회, | 2025.04.20-2025.04.22 | 이우 | 자재 |
| 제 4 회 인공지능, 인터넷, 디지털 경제 국제회의(ICAID 2025) | 2025.04.25-2025.04.27 | 광저우 | 인공지능 |
| 제 17 회 디지털 이미지 처리 국제 컨퍼런스(ICDIP 2025) | 2025.04.25-2025.04.27 | 하이커우 | 디지털 |
| 2025 년 전기공학 인공지능 응용 국제 심포지엄 | 2025.04.25-2025.04.28 | 베이징 | 인공지능 |
| 2025 국제주석산업포럼 | 2025.04.25-2025.04.27 | 쿤밍 | 자재 |
| 2025 년 중유럽 위험물 정상 포럼 | 2025.04.29-2025.04.30 | 상하이 | 자재 |
| 2025 제 7 회 글로벌 전자기술(충칭) 전시회 | 2025.05.08-2025.05.10 | 충칭 | 전자기술 |
| 2025 년 제 4 회 창사 국제 건설기계 전시회 | 2025.05.15-2025.05.18 | 창사 | 공정 장비 |





KIC 중국 주간 중국 창업

www.kicchina.org

info@kicchina.org로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중국의 다양한 창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위챗 공식계정



네이버 블로그와 위챗 공식계정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발행처: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센터장: 김종문

전화:+86-10-6780-8840 메일: info@kicchina.org